

보도시점 2026. 8. 7.(금) 조간
2026. 8. 6.(목) 12:00

배포

2026. 8. 6.(목)

장기요양 재가 어르신 10명 중 7명, “아파도 살던 집에서 살겠다” 「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 결과 발표

- 85세 이상 장기요양 수급자 47.3%, 독거가구 43.6%로 지속 증가 -
- 수급자 가족 84.6% 장기요양보험 만족, 부양부담 완화 효과도 높아 -

□ 85세 이상 수급자(47.3%)* 및 독거가구(43.6%)**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 (85세 이상 수급자) 2022년 44.2% → 2025년 47.3%

** (재가급여 수급자 중 독거가구) 2022년 40.2% → 2025년 43.6%

□ 재가급여 수급자 중 건강이 악화되어도 현재 집에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은 69.4%*로, 지역사회 거주 욕구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건강 악화 시 현재 집 계속 거주 희망: 2022년 49.8% → 2025년 69.4%

□ 수급자 가족의 84.6%는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만족하며, 70% 이상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통해 부양 부담이 완화*되었다고 응답하였다.

* 신체적 부양부담 완화 86.2%, 정서적 부양부담 완화 85.2%, 사회참여활동 향상 79.0%, 경제적 부양부담 완화 73.3%(2025년 신규 조사 문항)

□ 장기요양요원은 60대 이상 비율*이 63.4%로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으며, 처우개선 과제로 임금수준 향상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장기요양요원 중 60세 이상 비율: 2022년 62.9% → 2025년 63.4%

** 임금수준 향상 62.2%, 법정수당·휴게·근로시간 보장 17.1%, 기관별 임금격차 축소 11.4%

□ 장기요양기관은 재가급여 기관 중심 구조가 확대되고 있으며, 기관 간 과잉 경쟁과 인력채용 어려움 등이 주요 운영 애로사항으로 확인되었다.

* 재가급여 기관 비율: 2022년 78.7% → 2025년 80.6%

* 운영상 어려움: 이용자 모집 74.1%, 기관평가 70.4%, 인력채용 67.2%, 재정운영 58.4%

초고령·독거 수급자 증가와 재가 생활 욕구 확대에 대응하여 중증 수급자 보장성 및 병원동행 등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단기보호 제공기관 확충을 통한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등 재가 중심의 장기요양서비스를 강화한다. 또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와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안정적인 돌봄 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8월 7일(금) 장기요양 수급자 규모, 급여 수준 및 만족도, 장기요양기관 현황,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과 처우 등에 관해 조사한 「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장기요양실태조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의2에 근거하여 '19년 이후 3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 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 개요 >

- 조사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의2, 통계청 국가승인통계 제117104호
- 수행 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한국리서치
- 조사 기간 : 2025년 8월 13일 ~ 11월 19일
- 조사 방식 : 면접조사, 전화조사, 인터넷조사 병행
- 응답자 구성 : 장기요양 수급자 4,500명, 수급자 가족 3,368명, 장기요양기관 1,991개소, 장기요양요원 4,500명

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 수급자] 85세 이상 비율 증가, 재가 생활 욕구 확대

- ① 전체 수급자 중 85세 이상(47.3%) 및 독거가구(43.6%) 비율 지속 증가
* (85세 이상 수급자) 2019년 40.4% → 2022년 44.2% → 2025년 47.3%
** (재가급여 수급자 독거 비율) 2019년 34% → 2022년 40.2% → 2025년 43.6%
- ② 재가 수급자 중 건강 악화 시에도 재가 생활 유지를 희망하는 비율은 69.4%로 2022년 대비 19.6%p 증가

【수급자 일반 특성】

장기요양 수급자 중 여성 비율이 70.9%로 높았고, 연령별로는 80세 이상이 71.4%를 차지하였다. 85세 이상 수급자는 47.3%로 2022년 대비 3.1%p 증가하였으며, 75세 이상 85세 미만 수급자는 37.6%로 2022년 대비 2.9%p 감소*하였다.

* (75세 이상 85세 미만 수급자) 2019년 43.3% → 2022년 40.5% → 2025년 37.6%
(85세 이상 수급자) 2019년 40.4% → 2022년 44.2% → 2025년 47.3%

이는 85세 이상의 초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기존 수급자의 수급기간 장기화, 85세 이상 신규 인정자 수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 (85세 이상 노인인구 수) 2021년 633,656명 → 2025년 1,169,200명
(85세 이상 신규인정자 수) 2021년 66,075명 → 2025년 76,67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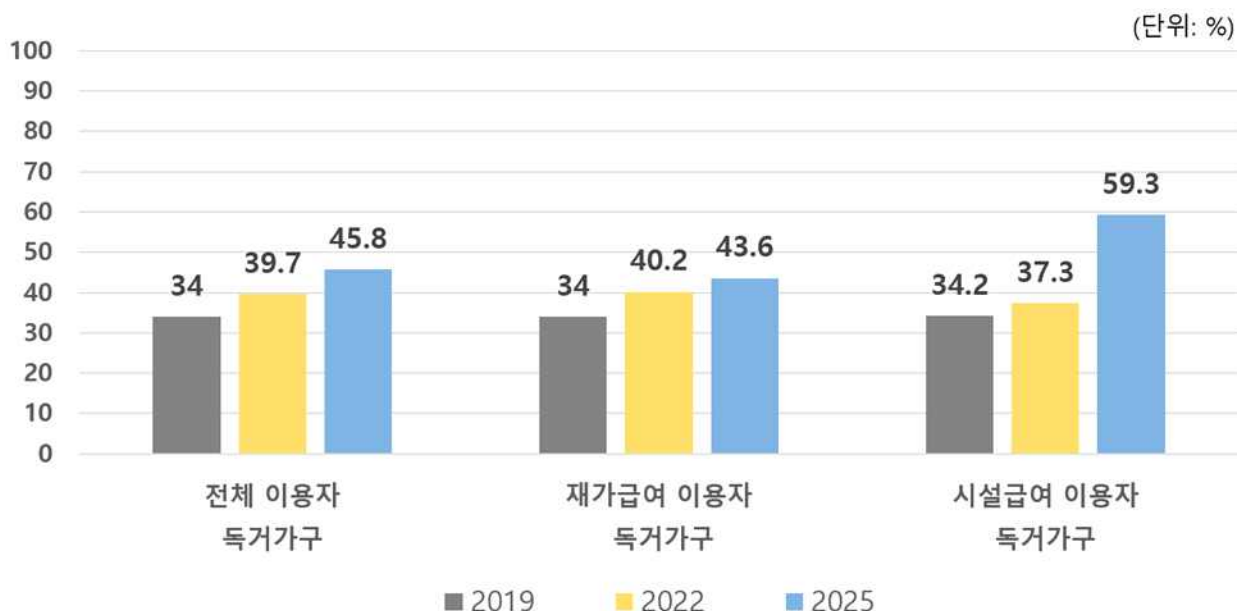
재가급여 수급자의 독거 비율은 43.6%로, 2022년 대비 3.4%p 증가하였으며, 시설급여 수급자의 입소 전 독거 비율도 59.3%로 2022년 대비 22.0%p 대폭 증가하였다. 이는 노인 전체 독거 비율 증가***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 (재가급여 수급자 독거가구) 2019년 34% → 2022년 40.2% → 2025년 43.6%

** (시설급여 수급자 독거가구) 2019년 34.2% → 2022년 37.3% → 2025년 59.3%

*** 2023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독거노인 비율은 2020년 19.8% → 2023년 32.8%로 증가

<재가 급여 및 시설급여(입소 전) 수급자 독거 비율>



건강 악화 시 희망 거주지에 대해서는 재가급여 수급자의 대다수인 69.4%가 현재 집에 계속 거주하겠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2022년 49.8% 대비 19.6%p 대폭 증가하였다. 반면, 노인요양시설 입소를 희망한다는 응답은 2022년 28.7%에서 2025년 17.6%로 감소하였다.

<재가급여 수급자의 건강 악화 시 희망 거주지 유형>

(단위 : %)

구분	현재 집 계속 거주	자녀 또는 형제자매와 함께 거주	(요양)병원 입원	노인요양시설 입소	계
2025년	69.4	1.8	11.2	17.6	100
2022년	49.8	3.7*	17.8	28.7	100
2019년	56.7(노인요양시설 입소의향 없음)			43.3	100

* ('22) 자녀/친인척 집으로 이사 → ('25) 자녀 또는 형제자매와 함께 거주로 문항 수정

수급자는 평균 3.3개의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주요 질환은 고혈압 65.0%, 치매 51.2%, 당뇨병 35.4%, 고지혈증 27.3% 순이었다.

* 2023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노인 1인당 평균 만성질환 2.2개 보유 중으로, 장기요양 수급자가 전체 노인 대비 상대적으로 더 많은 만성질환 보유

【수급자 이용 현황】

장기요양 수급자 중 80%는 재가급여, 20%는 시설급여를 이용하고 있으며, 재가급여 이용률*은 지속 증가 추세이다.

* (수급자 중 재가급여 이용률) 2019년 70.3% → 2022년 78.4% → 2025년 80%

재가급여 수급자는 방문요양(78.1%), 주·야간보호(21.5%), 방문목욕(19.6%), 방문간호(3.8%) 순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야간보호 이용률*은 지속 증가하였다.

* (주·야간보호 이용률) 2019년 19.9% → 2022년 20.5% → 2025년 21.5%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률*은 21%로 나타났으며, 미이용 사유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꺼려져서 39.6%, 병원 선호 23.6%, 충분한 가족 돌봄 14.5%, 경제적 부담 10.6%, 아직 서비스가 필요 없음 6.7% 순으로 나타났다.

* 미이용률은 2025년 1월 기준 장기요양급여 청구이력이 없는 등급 인정자 비율을 의미함(실태조사 기준 2019년 22.5% → 2022년 22.5% → 2025년 21%)

2. [수급자 가족] 장기요양서비스로 부양부담 완화, 재가 돌봄 의향 증가

- ① 수급자 가족의 장기요양보험 만족도 84.6%, 장기요양 서비스를 통해 부양부담이 완화되었다는 응답 70% 이상
- ② 재가급여 수급자 가족 43.5%가 건강 악화 시에도 현재 집에서 돌봄 희망

【수급자 가족 만족도】

수급자 가족의 장기요양보험 제도 만족도*는 84.6%이며, 장기요양서비스를 통해 부양부담이 완화**되었다는 응답도 7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만, 수급자 가족의 절반 이상(51.6%)은 여전히 돌봄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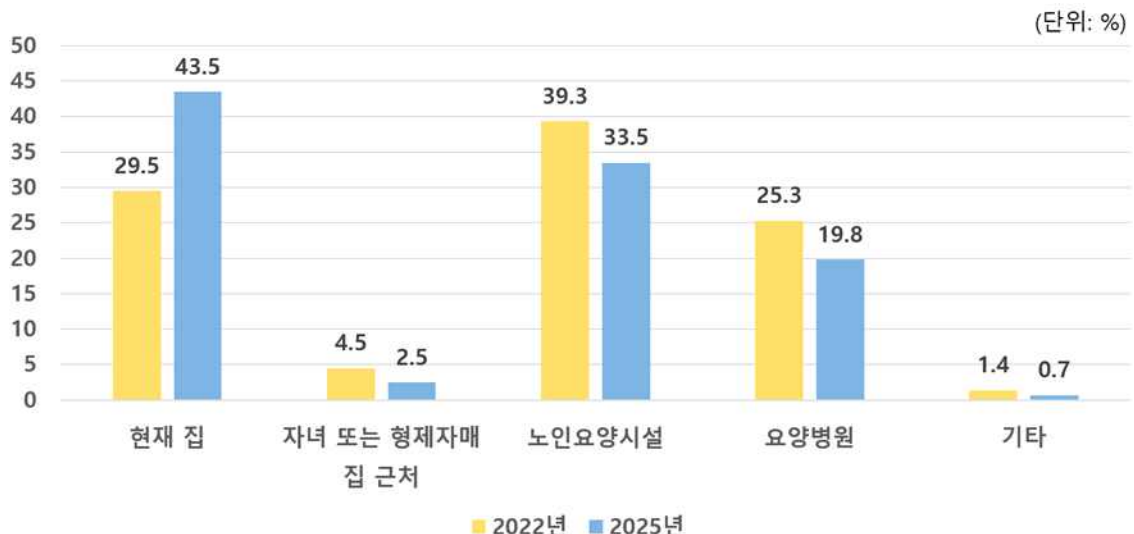
* (급여별 만족도) 단기보호(94.1%), 주야간보호(92.4%), 방문목욕(91.5%), 시설급여(91.4%), 방문간호(89.3%), 방문요양(88.8%) 순

** (분야별 부양부담 완화) 신체적 부양부담 완화(86.2%), 정서적 부양부담 완화(85.2%), 사회참여활동 향상(79.0%), 경제적 부양부담 완화(73.3%) 순

【수급자 가족 돌봄 의향】

돌봄 의향과 관련하여 재가급여 수급자 가족 중 43.5%는 수급자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더라도 현재 집에서 돌보겠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2022년 29.5% 대비 14.0%p 증가한 수치이다.

<재가급여 수급자 가족의 수급자 건강 상태 악화 시 선호 돌봄 장소>



3. [장기요양요원] 종사자 고령화, 비경제적 근무 이유 증가

- ① 재가급여 종사자 70세 이상 비율이 20.2%로 고령화 수준 지속 증가
- ② 장기요양요원 근무 이유 중 본업(23.8%), 부수입(27.2%) 등 경제적 이유 감소, 삶의 보람(17.7%), 가족 돌봄(19.2%) 등 비경제적 이유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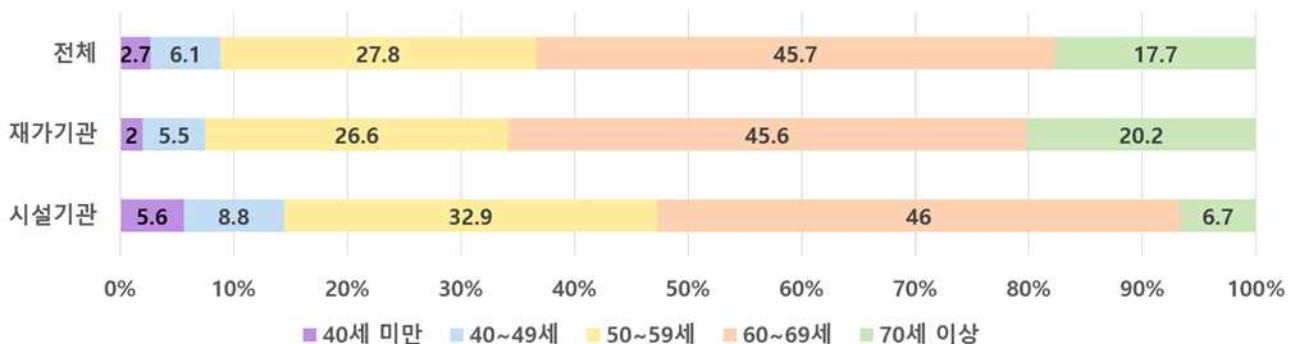
【장기요양요원 일반현황】

전체 장기요양요원 중 60세 이상은 63.4%*, 70세 이상은 17.7%로 2022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며, 유형별로는 재가급여 종사자의 70세 이상 비율이 20.2%로 시설급여 종사자 70세 이상 6.7% 대비 고령화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 (60세 이상 장기요양요원) 2019년 48.8% → 2022년 62.9% → 2025년 63.4%

** (재가급여 종사자 70세 이상) 2019년 10.9% → 2022년 17.8% → 2025년 20.2%
(시설급여 종사자 70세 이상) 2019년 1.9% → 2022년 3.2% → 2025년 6.7%

< 장기요양요원 연령 >



【장기요양요원 근무현황】

고용형태는 재가급여 종사자의 경우 단시간 근로 특성상 계약직* 비율이 76.1%로 나타났으며, 정규직 비율이 2022년 대비 0.9%p 증가하였다. 시설급여 종사자는 정규직 비율이 71.1%로 높게 나타났으나 2022년 대비 0.2%p 감소하였다.

* (재가급여 종사자 계약직 비율) 2019년 76.1% → 2022년 77% → 2025년 74.7%

장기요양요원의 평균 근무기간*은 5.5년으로 2019년 4.9년, 2022년 5.0년 대비 점진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재가급여 종사자(5.3년)보다 시설급여 종사자(6.3년)가 약 1년 더 근무하였다.

* 장기요양제도 도입 이후 장기요양기관에서의 전체 근무기간을 의미

직종별 월 평균임금은 직종별 월 근무시간 등에 따라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임금은 사회복지사(236.9만 원), 물리(작업)치료사(234.5만 원), 간호(조무)사(220.5만 원), 시설급여 요양보호사(219.8만 원), 재가급여 요양보호사(108.8만 원)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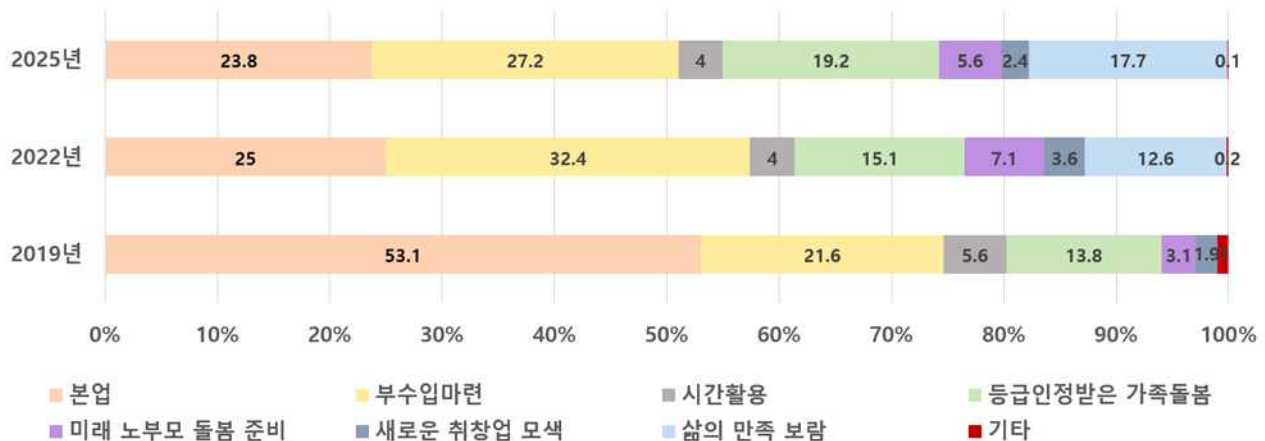
월 근무시간은 시설급여 요양보호사(164.7시간), 사회복지사(162.3시간), 물리(작업)치료사(155.6시간), 간호(조무)사(147.5시간), 재가급여 요양보호사(78.7시간) 순이다.

* (월평균 근무시간당 임금) 사회복지사 14,596원, 물리(작업)치료사 15,070원, 간호(조무)사 14,949원, 재가급여 요양보호사 13,817원, 시설급여 요양보호사 13,345원

장기요양요원으로 근무하는 주된 이유는 2022년 대비 본업(23.8%) 및 부수입 마련(27.2%) 등 경제적 이유는 감소하고 삶의 만족(17.7%) 및 가족 돌봄(19.2%) 등을 위한 비경제적 이유가 증가하였다.

* (본업) 2022년 25% → 2025년 23.8%, (부수입) 2022년 32.4% → 2025년 27.2%, (삶의 보람) 2022년 12.6% → 2025년 17.7%, (가족 돌봄) 2022년 15.1% → 2025년 19.2%

< 장기요양요원 근무이유 >



4. [장기요양기관] 재가 기관 확대, 이용자 모집 · 인력채용 어려움

- ① 장기요양기관의 80.6%가 재가급여 기관이며, 30명 미만의 소규모 기관 비율은 48.7%로 지속 감소 추세
- ② 장기요양기관은 이용자 모집(74.1%)과 장기요양기관 평가(70.4%) 등으로 운영 어려움 호소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유형별 분포를 보면 재가급여 기관*이 80.6%, 시설급여 기관이 19.4%로 나타났으며, 운영 주체별로는 개인 운영 기관(85.8%), 사회복지법인(8.4%), 영리법인(3.2%), 기타법인(2.4%) 순으로 나타났다.

* (재가급여 기관) 방문요양(49.8%), 주야간보호(16.7%), 방문목욕(11.9%), 방문간호(2.0%), 단기보호(0.2%) 순

장기요양기관의 평균 이용자는 36.4명이었고, 이용자 30명 미만의 소규모 기관 비율은 2025년 48.7%로 지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 (30명 미만 소규모 기관) 2019년 60.6% → 2022년 55.3% → 2025년 48.7%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상 어려움으로는 이용자 모집(74.1%)이 가장 높았고, 장기요양기관 평가(70.4%), 인력채용(67.2%), 재정운영(58.4%) 순이었다.

이용자 모집이 어려운 이유로는 장기요양기관 간 과잉 경쟁(46.8%)이 가장 높았고, 지역 내 인정자 부족(16.6%), 유사 돌봄서비스 선호(10.2%), 장기요양 급여 미이용(9.5%) 등이 뒤를 이었다.

5. [정책 요구] 이용시간 및 서비스 종류 다양화

- ① 수급자는 서비스 이용시간 및 맞춤형 서비스 등에 대해 개선 요구
- ② 장기요양요원은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임금수준 향상(62.2%), 법정수당·휴게·근로시간 보장(17.1%) 등 요구

재가급여 수급자는 서비스 이용시간 및 일수 확대(53%), 서비스 종류의 다양화(17%), 수시 서비스 이용(12.9%) 요구가 높았으며, 신규 도입을 원하는 서비스는 방문재활(23.8%), 이동지원(19.3%), 방문영양(14.5%), 식사배달(13.9%) 순이다.

시설급여 수급자의 경우 편안하고 익숙한 환경(30.1%)과 맞춤형 식사 제공(20.1%)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장기요양요원은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임금수준 향상(62.2%)이 가장 높았으며, 법정수당·휴게·근로시간 보장(17.1%), 기관별 종사자 임금격차 축소(11.4%) 순으로 나타났다.

근무 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업무 보조 장비 및 기기 지원(32.2%), 사회적 인식 개선(15.7%), 부당대우 적극 대응(15.3%) 등의 요구가 높았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수급자 고령화 및 지역사회 계속 거주에 대한 욕구 증가,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 필요성, ▲장기요양요원의 고령화와 처우개선 요구,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어려움 등을 토대로 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수급자 보장성 강화】

먼저, 건강이 악화되어도 현재 집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재가급여 수급자가 지속 증가 중인 만큼, 서비스의 충분성 확보를 위해 돌봄 필요도가 높은 중증(1·2등급)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수급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 중 낙상예방 재가환경 지원, 병원동행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방문재활·영양 시범사업 등 신규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하나의 기관에서 사례관리를 통해 수급자 욕구에 따른 간호, 요양, 주야간보호 등을 복합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도 지속 확충한다.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 대상 방문진료, 돌봄 연계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도 계속 확대하고, 거점 재택의료센터를 지정하여 방문재활 등 특화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연결망 구축을 통해 재택의료 서비스 질을 높일 예정이다.

수급자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보호자가 긴급한 사유로 돌봄 공백이 발생하였을 때 주야간보호기관에서 24시간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를 제도화하고 가족 휴가제에 대한 홍보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젊은 인력 유입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장기근속장려금, 농어촌 지역 장기요양요원 지원금,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등의 지급 현황, 효과성 등을 면밀하게 살펴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장기요양요원으로 근무하는 이유 중 삶의 만족과 보람 등 비경제적 요인이 늘어난 점, 사회적 인식 개선 요구 등을 고려하여 요양보호사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위한 홍보, 수급자 교육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장기요양기관 운영 부담 완화】

보건복지부는 위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평가 지표를 고도화하고, 평가 준비에 대한 장기요양기관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공단이 보유 중인 급여 제공 관련 데이터를 활용한 전산평가를 확대해 갈 예정이다.

최봉근 노인정책관은 “이번 장기요양실태조사를 통해 분석된 변화된 정책 여건을 고려하여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재가 서비스의 충분성과 다양성을 높이고, 장기요양요원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상세 보고서는 복지부 누리집에 게시될 예정이며,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을 통해서도 제공된다.

담당 부서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제도과	책임자	과 장	윤수현 (044-202-3380)
		담당자	사무관	권고운 (044-202-349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책임자	연구위원	김세진 (044-287-8402)
		담당자	연구원	정찬우 (044-287-8228)